■■■ 합격기
〔200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盡人事待天命

전 상 욱

• 대구 학남고등학교 졸업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대 졸업
•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 합격

Ⅰ. 들어가며

합격수기 원고청탁을 받으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제가 운이 좋아 용케 사법시험에 합격하기는 하였으나 시험성적이 그리 우수한 것도 아니었고 소위 말하는 최상위 명문대의 학생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 현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는 저와 같이 평범한 수험생분들도 적지 않으리라 생각되었고 그 분들에게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수기를 쓰기로 하였습니다.

이하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의 주관적인 졸견에 불과하므로 하나의 참고사항으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Ⅱ. 시간적 고찰

1. 제1차 시험 준비시기

(1) 사법시험 준비 결심

군대를 전역하고 학교를 1년 다녔습니다. 제가 입대할 당시에는 이미 로스쿨제도가 도입되어 있었으므로 저 역시 막연히 로스쿨 진학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무료한 겨울방학을 보내던 중 사법시험을 준비하던 친구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친구에게 "사시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물었더니 친구는 "시험 하나 떨어진다고 내 인생 어떻게 되겠냐?"라고 대답했습니다. 친구의 대답에서 느끼는 바가 있었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길만 골라가려고 몸을 사리던 제가 부끄럽게 느껴졌습니

다. 이를 계기로 사법시험을 준비해보고자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시험장을 경험해 보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여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사법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경험삼아 시험에 응시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험장 분위기를 한번이라도 경험해본 것이 다음 해 시험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 기본강의

기본강의는 말 그대로 기본강의입니다. 수험생활을 시작하는 단계이므로 자칫 과한욕심으로 오버페이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강의기간에는 헌·민·형의 교과서를 충실히 탐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험생활이 길게 느껴지지만 기본서를 여유를 가지고 읽어볼 수 있는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문제를 푸는 등의 실제시험에 있어서의 대비에 치중하기 보다는 기본적인 개념확립에 충실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판례강의

학원에서는 판례강의를 기본강의보다 판례의 심도 있는 이해에 치중한다고 광고하지만 사실 축약된 기본강의입니다. 판례강의의 수강여부는 선택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강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 진도별 모의고사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강하는 것이 '득'인가 '독'인가에 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는 줄 압니다.

일단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강함에 있어 장점으로는 규칙적인 생활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점, 문제풀이에 있어 실전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지나치게 빡빡한 일정으로 쉽게 지쳐버릴 수 있다는 점, 지나치게 지엽적 문제가 출제된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처음 시험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장점 외에도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강한다는 점에서 시험준비에 있어서 나만 뒤처지는 것 아닌가하는 불안감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결정적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진도별 모의고사를 수강하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성적과 석차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진도별 모의고사의 성적이 합격과 연관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체로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진도별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만에 빠져 시험에 낙방하는 경우도 보았고 성적이 나빴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주어진 공부에 충실하여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시험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응시하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5) 마무리 준비

진도별 모의고사 기간이 끝난 후에는 수험생들은 혼자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 학원에서 하는 마무리 강의를 수강할 것

인가를 고민하게 되는데 이 역시 선택사항입니다. 그 동안 시험준비기간에 있어서 느낀 점을 토대로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이 기간은 정말 힘든 시기입니다. 날씨는 점점 추워져 건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져 공부를 포기하는 인원들도 생깁니다. 그 동안 열심히 준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과연 이 정도의 수준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을까"하는 고민이 들기 마련입니다. 잡생각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 노력하면서 자신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공부계획을 잘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짤 때는 휴식을 포함하여 조금의 여유기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계획을 지나치게 빡빡하게 계획하였는데 몸이 아프거나 급한 일이 생겨 부득이 공부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였을 시에 전체계획이 어그러져 자칫 학습 페이스가 엉망으로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잘 세웠다면 그 계획에 따라 성실히 공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자신이 짠 계획에 따라 공부를 마치게 된다면 시험장에 들어갈 때 나는 할 만큼 했다는 자신감이 함께 할 것입니다.

(6) 시험 당일

시험 전날에는 잠을 설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저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잠을 설쳤다고 해서 지나치게 예민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수험생들 중에 시험 전날 편안한 마음으로 숙면을 취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서로 같은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자신 있게 시험에 임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틀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풀어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를 틀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시간 내에 문제를 다 푼 뒤의 문제입니다.

(7) 시험이 끝난 후

시험이 끝난 후에 성적이 예상되는 합격커트라인에 상회하는 경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2차 시험준비에 들어갈 것입니다만 문제는 성적이 애매한 경우일 것입니다. 저도 성적이 그리 뛰어나지 않아 신림동에서 시험준비를 계속할 것인지 학교복학을 할 것인지 고민하였던 기억이 납니다.

제 생각으로는 시험성적이 합격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합격여부와 관계없이 2차 시험준비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시험을 계속 준비할 생각인 경우에는 두말할 나위 없고, 불합격시 시험준비를 그만둘 생각인 인원들이라 할지라도 2차 시험준비 경험이 앞으로의 진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취업이 되었든 로스쿨로의 진학이 되었든 간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3. 제2차 시험 준비시기

(1) 예비순환

1차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안도감에 의해 자칫 게을러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학원일정이 다소 불편하게 되어있으니 꼭 학원일정에 맞추어 수강하기 보다

는 스스로 일정을 조정하여 듣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생동차로 합격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만 저와 같은 범인(凡人)들에게는 힘든 일이 아닐까합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시기에는 지나친 욕심을 내기보다는 1차 시험의 공부방법론에서 벗어나 2차 시험 특유의 공부방법론을 익히는 데 치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도 초시생 때는 생동차 합격에는 욕심을 가지지 않고 2차 시험공부의 기초를 다지는 데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는 2차 수험생들의 가장 큰 무기라고 할 수 있는 법전을 활용하는 법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초시

처음으로 들어가는 2차 시험장은 설레는 감정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조금 괴로웠습니다. 뭘 묻는지도 모르겠고 뭘 써야할지도 모르겠는데 필사의 각오로 시험지를 써내려가는 수험생들 사이에서 2시간 시험장에 앉아있는 것은 그 닥 유쾌한 경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시 시험장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도 꽤 보았습니다.

그러나 초시시험장에 들어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1차 시험 준비에서도 언급하였듯 시험장에 들어가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경험이 되고 다음 해 시험에 있어서 큰 심리적 안정을 가져다줍니다. 그리고 돈 주고도 할 수 없는 진정한 실전 경험이 되고 조금은 애매하다고도 볼 수 있는 주관식 시험에서의 채점에 대한 감도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상법과 민사소송법은 과락을 맞았지만 나머지 과목에서는 생각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놀랐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특히 헌법의 경우에는 답안지를 다 채우지도 못하였고 암기가 덜 되어 조문을 그대로 베끼는 식으로 지면을 겨우겨우 채웠음에도 불구하고 초시에서의 헌법성적이 재시에서의 헌법성적보다도 더욱 잘나오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2차 시험에 불합격하였더라면 위와 같은 채점결과는 저에게 많은 참고사항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는 제가 초시에 성실히 응시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3) 1순환

1순환이라고는 하지만 예비순환에 성실히 임한 사람들은 같은 과목을 2번째 수강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서 강조할 점은 학원에서 하는 모의고사에 성실히 임하라는 것입니다. 아직 2차 시험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이 느껴져 더욱 완성된 단계에서 답안을 작성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들 것입니다만 2차 시험장에 학문적으로 완벽히 완성되어 들어가는 수험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불확실함과 미완성을 업고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익혀야 될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의 답안작성은 그에 대한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불의타 문제도 결국은 자신이 가진 지식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법논리적으로 완성된 문장을 뽑아내는 능력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비한 연습도

동시에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2순환

1순환 시기와 비교하여 학원에서의 모의고사 횟수가 늘어났다는 점을 제외하면 크게 달리지는 점이 없습니다. 이 시기부터 학원을 다닐 것인지 혼자 공부를 할 것인지 고민이 들기 시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기간까지는 학원을 따라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합니다. 학원 수업을 수강함으로써 얻어지는 규칙적인 생활의 유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성실히 공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독학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지만 혼자서 공부를 시작하려는 사람들은 학원을 나가는 것이 귀찮고 강의를 듣는 것이 고달파져서 혼자서 공부하려는 것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합리화하는 것이 아닌지 진지하게 자문해보아야 합니다.

(4) 마무리 준비

저는 학원일정에서의 3순환 시기부터는 혼자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원일정에 따라가게 된다면 '7-4-2-1전략'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에 따라 달리 선택할 부분입니다.

사실 저는 1순환 시기부터는 모의고사에서 답안작성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답안작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하고는 답안의 '내용'에 충실하고자 생각하여 기본서를 조금 더 읽는 전략으로 나아가야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답안작성에 있어서 대비가 덜 된 수험생들도 있을 것이므로 그러한 수험생은 계속하여 학원에서의 모의고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무리 준비기간 동안 저는 과목별로 1회독을 마친 뒤에는 사법시험 기출문제를 프린트하여 시간을 맞추어 답안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실제 시험과 최대한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 보려고 문제지는 A4용지로 출력하였습니다. 그것이 실제 사법시험 문제지와 크기가 같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좋은 공부방법이었다고 자평하여 봅니다. 왜냐하면 사법시험 출제의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실제시험에 있어서도 연습에서 작성한 수준의 답안작성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시험

시험은 4일간에 걸쳐 치러지므로 건강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시험 전날 다음 날의 시험과목을 1회독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합격여부가 결정된다는 수험가의 속설이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한 분들은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저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전부터 큰 시험을 치루고 나면 머리가 아파 그날 하루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법시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1차 시험 때도 그러하였습니다만 1차 시험은 하루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2차 시험은 며칠에 걸쳐 치러지므로 문제였습니다. 2차 시험 기간 동안 책을 보는 것은 깔끔하게 포기했습니다. '책을 읽지 않아 닥칠 시험

성적의 하락'과 '무리하게 책을 보다가 컨디션의 난조를 불러 시험전체를 망쳐버릴 위험'을 비교하여 결정한 지극히 경제학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론적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존의 사법시험과는 달리 최근의 사법시험의 출제경향은 단순한 암기사항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례해결능력을 평가하는 문제가 주를 이루고 교수님들의 채점도 그에 맞추어 이루어지므로 예전보다는 시험기간 중의 1회독의 중요성이 떨어진 것이 아닌 가 조심스레 생각해봅니다. 사례해결능력이 하루 만에 길러지는 것도 아니고 하루 책을 읽지 않았다고 하여 사라질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험기간 동안 책을 놓고 컨디션 조절에 치중할 것인지는 정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체력과 정신력이 뒷받침된다면 시험 전날 책을 읽는 것이 읽지 않는 것 보다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고 더구나 총점 소수점 단위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7) 시험이 끝난 후

2차 시험이 끝나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한 달 정도는 해방감에 즐거운 날들을 보내지만 합격자 발표일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을 보내게 됩니다. 자신의 합격여부를 조금이나마 가늠해보려고 자신이 작성한 적어와 모범답안과 비교해 보기도 합니다.

저는 시험 이후에는 시험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으려 모범답안 등과 비교해보지 않았습니다. 모범답안은 지면과 시간의 제한 없이 작성한 것 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수험생들보다 더욱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작성한 것이므로 그것과 유사하게 적어야만 합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사법시험의 합격여부가 단순히 목차와 결론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가늠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라 봅니다.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니 결국 시험의 당락은 하늘에 맡기고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생활에 충실하면서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는 게 최선이라고 봅니다. 안타깝지만 불안감을 품고 가는 것은 수험생의 숙명이 아니겠습니까?

Ⅱ. 항목별 고찰

1. 강의와 교재의 선택

신림동에 존재하는 강의와 교재 중에 합격에 부족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결국 그것을 받아들이는 측이 강의와 교재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에서 저의 수기에는 강사와 교재의 이름을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수험기간 내내 이른바 말하는 대세강의, 대세교재를 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대세와 비대세 간의 수준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세를 택한 것은 다수에 속해있다는 안정감을 얻어 수험기간동안에서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공부시간

저는 학원강의를 수강하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수험기간동안 평균적으로 7~8시간을 공부하였습니다. 합격에 필요한

절대적 공부시간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학원에서 수강한 내용을 복습하는 데 있어 7~8시간 정도가 걸려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학원에서 공부한 내용이 많거나 이해가 되지 않아 오래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새벽 2~3시까지 공부한 경우도 있었고 그 날 학원에서 배운 내용이 비교적 쉬워 공부가 일찍 끝난 날은 저녁식사시간 전에 끝내고 휴식을 취한 경우도 있습니다. 즉 그날 학원에서 수강한 내용은 밀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였고 그 날 모두 복습하려 노력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절대적 공부시간이라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당일 수강한 내용을 확실히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질'의 문제라고 봅니다.

학원 강의를 수강하지 않고 혼자 공부하는 시기에 있어서는 자신이 세운 계획을 그 날에 모두 끝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열심히 하여 계획된 공부를 일찍 마치게 된 날은 열심히 공부한 자기에게 주는 상으로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3. 공부장소

신림동 고시촌은 고시공부하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고시공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를 얻기 쉬운 장소임과 동시에 식당이라든가 원룸 등의 물가도 다른 지역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고시촌에서는 병원도 고시생들에게 특화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와의 단절'이라는 고시촌의 장점이 홀로 생활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하고 외로움을 잘 느끼는 분들에게는 치명적 단점으로 다가오므로 그러한 분들이라면 학교 고시반 등에서의 수험생활을 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4. 글씨문제

2차 시험에서 많은 수험생들이 고민에 빠지게 되는 것이 글씨문제입니다. 명필(名筆)이 악필(惡筆)보다는 당연히 유리합니다. 채점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또박또박한 글씨로 작성된 답안지에서 채점자가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은 쉽게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악필이었습니다만 남들이 글씨를 해독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다만 읽기에 불편할 정도였습니다. 생각해보건대 시험응시인원이 준 것은 예전보다는 그나마 악필들에게 덜 불리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채점할 답안지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예전보다는 악필이 작성한 답안지를 교수님들께서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채점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입니다.

사실 악필이 1년 남짓한 2차 수험기간 동안 글씨를 교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고 주변을 살펴보더라도 시험준비를 하면서 악필에서 벗어난 사람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주어진 공부를 하기에도 버겁고 글씨를 교정한다는 것은 평생의 생활습관을 바꾸는 일이므로 단기간에 이루어질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필보다 더욱 큰 문제는 지필(遲筆)입니다. 악필은 전체문맥에 따라 채점자가 해석하여 채점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필의 경우에는 작성하

지 못한 백지를 채점자가 추측해서 채점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말하는 지필의 경우에는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공부가 부족하여 답안작성이 느린 경우 그리고 글씨 쓰는 속도 자체가 느린 경우입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추후 암기를 더 철저히 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후자는 필히 교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 건강관리

수험생활에 있어 건강관리는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수험생활 시작하기 이전에는 감기로 병원을 찾아본 적도 없었고 학창시절부터 구기 종목을 좋아하고 즐기었기에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 시험 준비 시절에는 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였지만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이 가장 큰 이유였을 겁니다.

그러나 1차 시험을 준비가 막바지이던 겨울, 평생 걸리지도 않던 감기몸살이 독하게 찾아오게 되었고 며칠을 고생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예전과 달리 추위를 몹시 타게 되었고 조금이라도 몸에 한기를 느끼는 날이면 어김없이 감기로 고생하였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건강관리에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2차 시험준비 기간에는 공부를 조금 일찍 끝내는 한이 있더라고 하루에 1시간씩은 운동에 시간을 투자하였습니다. 가벼운 운동은 체력관리에도 도움이 될 뿐더러 공부로 인하여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되므로 정신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6. 휴 식

저는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강의가 막바지에 접어들어 학원에서 보강이 있는 날 혹은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2달여간을 제외하고는 주중에 열심히 공부한 제 자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으로 일요일은 필히 쉬었습니다. 수험생활 초기에 열의에 불타 일요일도 쉬지 않고 공부하는 동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후에 그 자신도 후회하였습니다. 1년 내내 쉬지 않고 놀라고 해도 다 놀지 못할 것입니다. 노는 것도 그러할진대 공부는 어떠하겠습니까? 휴식을 충분히 알차게 취하는 것도 수험생활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휴식의 시간이 즐거우려면 지난 학습에 충실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스스로에게 떳떳하게 맘 편히 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휴식을 제대로 취한다면 그 이후에 이어지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휴식은 열심(熱心)히 하는 공부의 장작 혹은 연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7. 연 애

수험기간 중 새로운 인연을 만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말리고 싶은 일입니다. 연애 초에는 감정소모가 잦으므로 수험에 쏟아야 할 에너지를 연애관계에 써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원래 만나는 사람이 있던 경우에는 연애가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저는 신림동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고 여자친구가 수험기간 동안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고시생과 비고시생의 만남은 일방적으로 비고시생의 희생을 강요하기 마련입니다. 고시생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해주는 이성친구는 수험생활에 도움이 된다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엔 신중히 고심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Ⅳ. 나가며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공부 자체도 힘들지만 사실 제일 수험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일 것입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나는 과연 어떻게 될까?"하는 불안감과 싸우는 것이 수험생활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저는 수험기간 동안 마음에 '진인사대천명'이라는 한자성어를 마음에 새기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수험생에게 가장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합니다. 시험의 당락은 하늘에 달렸다고 봅니다. 다만 그 것은 시험공부에 최선을 다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찌 본다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보다도 자신이 행한 노력에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는 행운아였습니다. 힘들게 공부하시는 분들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공부했습니다. 저는 병역문제를 해결하고 시험 준비를 시작하였고 시험에 실패하더라도 로스쿨로의 진학이라는 차선책이 있었습니다. 수험기간 동안 집안과 주변에 큰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기를 쓰는 지금도 과연 제 글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비교적 마음고생 없이 공부한 저일지라도 수험기간 동안 숨이 차다는 느낌을 가끔 받았습니다. 흔히들 고시공부를 마라톤과 같다고 합니다. 열심히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간에 걸친 레이스라는 점에서 페이스 조절이 필요하고 막판 스퍼트가 중요하다는 것을 빗댄 말이겠지요. 수험생활 시절 고시식당에서 밥을 먹고 다시 독서실에 들어가려할 때에는 제가 마치 마라톤 선수가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숨이 차지만 제가 정한 목표를 위해서는 발을 내딛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시 독서실을 들어가 책을 잡았습니다.

"열심히 노력한 자들이 모두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공한 자들은 예외 없이 모두 열심히 노력한 자들이다"라는 말이 수험기간 동안 참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합격인원이 점점 더 줄어드는 지금의 현실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수험생들 모두가 합격의 영광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이 납득하지 못할 노력을 한 수험생이 합격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앞날에 행운이 깃들길 바래봅니다. 비루한 제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Ⅴ. 감사의 말

사법시험을 준비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망설임 없이 허락해주시고 수험기간 내내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아버지, 아

들들에게 항상 헌신적인 희생을 보여주시는 어머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법학에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가르침을 주신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님들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합격수기 쓸 기회를 추천해 주신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이창현 교수님께 제 글이 누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의 합격을 의심하지 않고 격려의 말을 아끼지 않은 초·중·고 동창들 그리고 대학친구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자기일처럼 기뻐해준 야구부 선후배분들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2년이 넘는 수험기간 동안 고시생 남자친구를 만나느라 너무 힘들었을 민정아 고마워. 내 곁에 네가 없었다면 수험기간이 너무 힘들었을거야.

마지막으로 저에게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면의 한계로 일일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